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수 진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수 진

인 준 서

김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 2. 연구의 내용2

II. 본론

- 1. 촉각의 이해4
 - 1) 촉각의 과학적 정의4
 - 2) 촉각의 발달5
 - 3) 감각교육의 중요성6
 - 4) 미술교육에 있어서 촉각체험의 중요성9

- 2.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11
 - 1) 촉각교육의 위상 및 의의11
 - 2) 바우하우스에 있어서의 촉각교육14
 - 3)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촉각교육17

- 3.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지도 프로그램19
 - 1) 촉각체험 프로그램19
 - 2)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구안28
 - 3)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탐색29
 - 4) 촉각체험 프로그램 예시30

III. 결론47

참고문헌	49
ABSTRACT	51

논 문 개 요

미술은 감성을 중요시하는 교과이다. 이러한 감성은 학생들의 미적 경험을 통해 길러지며, 미적 경험은 주변의 감각적 경험에서 시작한다. 즉 표현력뿐만 아니라 미적 감성을 얻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만의 감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사물과 직접 접촉하는 촉각 경험을 통해 감성을 키우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술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미적 감성을 개발할 수 있는 '촉각 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보았다.

첫째, 촉각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어 흥미를 유발시켜 적극적인 감정 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대상을 관찰하는 감각 지각력과 상상력을 증대시켜 창의적 표현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가설의 검증을 위해 먼저 촉각이 다른 감각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촉각경험이 미술교육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미술학습에서의 표현력 신장에 성과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촉각은 시각이나 후각처럼 특정한 감각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온몸의 피부에 그 수용기가 퍼져있다. 또, 질감의 표현이 다양하듯이, 촉각은 논리적 표현 방법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감각의 도움을 받아야 확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물건을

직접 만져보지 않더라도 그 질감에 대해 추측이 가능하며, 그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질감은 물건의 이미지 형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촉각은 단지 시각적 이미지의 확인 수단에 불과하지만 시각과 촉각의 순서가 바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시각적 편견에서 벗어나 물건을 먼저 만져본 후 이미지를 추측하게 함(Blind Test)으로써 풍부한 감성을 자아낼 수 있다. 현재의 미술 교육이 창의성을 억누르고 획일성을 강요하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test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시각위주의 '보고 그리기'식의 미술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촉각을 통해 느낀 바를 보다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해 보았다. 수업이라는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 되도록이면 놀이 형식으로 접근해 보았고, 실물 자료를 동원해 직접적인 체험을 유도하였다. 비록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고 교사는 주체이지만, 촉각 체험 시간만큼은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사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되도록 허용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 촉각 체험에서 느낀 점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자유도를 허용하여야 한다.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표현 재료나 방식 또한 자유로워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표현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테면, 대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촉각으로 느낀 점을 단순히 색으로만 표현한다든지, 조형이 가능한 재료들을 제시하고 단순한 형태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감성의 다양성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촉각 체험은 미술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교사는 감성과 표현 양면에서 최소한의 간섭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감성 표현을 유도해낼 수 있는 미술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축각의 경험을 살려 창의적이고 구조적인 표현을 지향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동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표현력을 신장시켜주고 미적 안목을 길러주는 새로운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II. 본론	4
1. 촉각의 이해	4
1) 촉각의 과학적 정의	4
2) 촉각의 발달	5
3) 감각교육의 중요성	6
4) 미술교육에 있어서 촉각체험의 중요성	9
2.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11
1) 촉각교육의 위상 및 의의	11
2) 바우하우스에 있어서의 촉각교육	14
3)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촉각교육	17
3.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지도 프로그램	19
1) 촉각체험 프로그램	19
2)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구안	28
3)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29
4) 촉각체험 프로그램 예시	30
III. 결론	47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예술은, 인간의 주변 세계에 대한 감각적 해석을 집대성하는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분야이다. 예술의 창작과 이해에는 적극적인 미적 경험이 필요한데, 이것은 미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적 경험은 인간에게 감성을 키워주고 상상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며 인간 존재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준다.

미적 경험은 감각적 경험에서 시작한다. 즉, 생활 속에서 느낀 점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미술적 표현력이 향상되고 미적 안목도 길러지게 된다. 따라서 미술지도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사물의 특징을 탐색하고 지각해서 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촉각은 여러 가지 감각 중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이다. 어린 아기는 최초로 물건을 만지는 촉각의 방법으로 물질의 감각을 배운다. 이러한 특징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손으로 만져서 사물과 직접 접촉하고자 하는 유아들의 원초적인 습성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촉각 교육을 통해 감성을 키우고, 이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미술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인간 존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필요성을 두고 전개된다.

한편,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질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학습방법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표현의 욕을 유발시키고, 인지적, 정서적으로 창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미술활동의 수단 중 하나가 촉각교육이다. 촉각이라는 자연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잠재적인 지식을 얻고 즐거운 자기표현에 의한 미적 정서를 함양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촉각교육이 어린이들의 미술학습 성과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으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촉각교육이라는 미술지도 접근법으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촉각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을 관찰하는 지각력과 상상력을 증대시켜 창의적 표현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셋째, 교사와 어린이들이 미술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여 바람직한 미술교육 방향을 모색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촉각의 과학적 정의와 발달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미술교육에 있어서 촉각체험의 중요성을 가늠하고 촉각교육의 의의를 살펴보고자한다.

기존연구를 통해 바우하우스에 있어서 촉각교육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였고,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촉각교육을 연구하여 어린이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촉각체험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미술교육에 있어서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이 왜 중요한지, 촉각체험을 미술교육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새롭고 다양한 촉각체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촉각체험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미술표현의 무한한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재료의 경험과 촉각연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한다.

촉각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미술교육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올바른 촉각체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미술표현 학습이 될 수 있는 미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한다.

II. 본 론

1. 촉각의 이해

1) 촉각의 과학적 정의

생리학에서 촉각이란 피부감각의 하나로서 피부가 물건에 닿았을 때 일어나는 감각이다. 피부는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으며, 생존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 피부에 있는 수용기들을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각을 피부감각이라고 하며, 이러한 피부감각에는 다양한 감각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피부감각의 종류는 아직도 명확히 분류하기가 힘들며, 단지 우리의 피부에는 압각, 열각, 통각을 느끼는 3종류의 별도 기관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¹⁾ 여러 형태와 양을 갖는 에너지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말초 신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닿는다’, ‘누른다’, ‘간지럽다’ 등 다양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그 중에서도 통각의 감수성이 제일 높으며 열각이 가장 낮다. 그리고 압각은 진동에 의한 주기적 혼란과 함께, 접촉이나 압력에 의해서 대상물의 형태, 크기, 무게, 견고성 및 표면 성질에 관한 정보를 준다. 따라서 압각 수용기의 밀도가 최고인 신체부위는 촉각적 자극에 가장 민감하다.

한편 촉각이란 오감의 하나로서, 재료의 속성, 질감(texture) 구성, 이전 경험과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성으로서 모든 촉각적 경험을 포괄한다. 촉각은 일차적 감각이자 촉감 혹은 재질감

1) 박경수, 감성공학 및 감각생리, 영지 문화사, 2002, P.281~282

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 촉각은 행위에 의한 통합적 감성으로서 접촉 감각, 압각, 마찰감각, 중량감, 통각, 온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들로 인한 감성들을 모두 포함한다. 로렌스 (Lawrence, K)는 촉각은 피부에 작용하는 접촉감각, 압각, 마찰감각, 중량감 및 충돌감각 등의 역학적 자극을 감지하는 기능이며, 이를 기초로 매끄러움, 부드러움, 딱딱함, 부피감, 뻣뻣함, 탄력성, 온도감 등의 인간의 정서적 촉각 감성 표현을 촉감이라고 하였다²⁾

2) 촉각의 발달

촉각은 사물을 만질 때 서로 다른 표면의 성질을 받아들이는 역할 즉, 사물을 만짐으로써 성질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피부감각의 일종으로 통증 지각, 압박, 냉온 감각을 포함하여 시각 경험과 결합하여 시각을 통해 느끼는 재질감도 포함한다.

생후 7개월에서 8개월 된 영아는 피부로만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넣어 입안의 느낌과 촉감도 같이 느끼려고 한다. 손 근육이 발달하는 시기는 생후 18개월 이후지만, 영아 때부터 초등학교 시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손놀림을 많이 하면 두뇌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손으로 하는 놀이를 자주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한다.

촉감은 성장함에 따라 손근육의 발달로 정교하게 완성된다.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은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정서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미술 시간에도 재료의 경제성과 효과 면에서 손을 이용하는 작품 활동이 장려되고 있다.

2) Lawrence, K, "Pain and Touch", Academic Press 1996

피부는 뇌와 풍부한 신경회로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아주 약한 자극도 뇌에 잘 전달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촉각을 이용하여 찬 것과 더운 것, 부드러운 것과 거친 것, 폭신한 것과 딱딱한 것 등의 다양한 감각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뇌의 발달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3) 감각 교육의 중요성

미술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움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곧 공간적, 시각적 미를 나타내는 그림, 조각, 건축, 공예 등을 말하며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각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다.

미술이 인간의 내면적인 것 (감정, 정서, 지능, 느낌 등)을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것이고, 교육이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로 신장되도록 돕는 인간 형성의 과정이라 한다면 미술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로 신장되도록 돕기 위한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교육이다. 인간의 내면의 과정은 다 다르다. 획일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미술적인 내면화 즉, 걸 모습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의 작용과 사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완성되는 것이다.

표현은 모든 지각의 범주 가운데 최후의 극점이다. 이것은 시각적 긴장을 야기 시킴으로써 모든 지각의 범주들이 기여하는 표출이다. 즉, 표현은 감각과 지각의 총체적인 내면인 것이다. 표현을 위해 경험되는 감각은 특히 아동의 사고와 그 표현에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

한다. 감각은 어린이의 미분화된 상태의 시지각의 구체화를 돕는다. 또한 적정하고 바람직한 자극이 부여될 때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내용은 감각능력을 신장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아동은 그리고 만드는 미술활동 과제에서 대상의 특징을 모든 감각을 통해 관찰하고 지각한다. 그리고 감각적 인지를 바탕으로 자기의 내면세계와 감성을 표현한다. 따라서 적절한 감각적 경험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고 지각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본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등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직접적인 감각체험을 통한 감성활동은 단지 이해를 돕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상을 개성적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감각기관은 그 기관이 감각한 바에 따라 대상을 지각하며, 어떤 대상을 특별하게 보기도 하고, 어떤 소리에 특히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지각한 바에 따라 대상을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다르다.

그리고 감각을 통한 지각경험이 많은 아동들은 미술표현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형태, 색채, 특징 등 감각적 인상을 많이 나타내려 노력한다. 반면에 지각경험이 부족한 아동들은 작품제작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감각교육에 있어서 재료의 자극은 중요하다.

어린이 미술활동의 재료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료의 경험을 통해서 미술활동의 즐거움과 창의성 및 미적 감각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의 재료는 미술 활동 시에 재료에 대한 지배능력을 갖게 하며 그 깊이를 더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아동의 지각능력과 표현능력은 직접적인 감각경험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되며 개개인마다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한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감각교육은 미술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몬테소리(Montessori)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감각적 능력을 갖추고 태어난다고 하면서 감각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감각교구를 고안하여 감각의 자극을 통한 아동의 지능발달과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연구했다.

몬테소리가 제시한 감각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각을 통해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여 지각하고, 그 대상에 대해 바른 관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자기의 감각기관에 실물을 실제 지각하여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지식의 기초를 갖게 된다.

셋째, 손을 사용한 손가락의 훈련과 교구 및 여러 가지 도구사용을 통해서 자기 의도를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집중의 습관을 길러주고 민감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정확한 감각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개념과 바른 가치판단 및 감동이 정립되어 올바른 인격형성의 기초를 만든다.

여섯째, 자기 감각에 의해 획득된 지식은 체계화되어 올바른 지식으로 육성된다.³⁾

감각을 사용한 활동은 인상에 남기 쉽고 학습의 정착효과도 크며

3) 김선애, 몬테소리 감각교육이 유아의 지각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지능의 발달과도 관계가 많다. 그리하여 인간의 발달단계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도 직접체험을 중요시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감정을 가졌고 그것을 표현한다. 그 표현방법이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언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감각을 사용한 직접적인 경험은 아동에게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행지식을 풍부하게 해주며, 심적 에너지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므로 그 교육적 의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감각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주위환경을 지식으로 수용하고 감성으로 느끼며 조형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므로 감각을 훈련할 수 있는 감각교육은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미술교육에 있어서 촉감체험의 중요성

H. Read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이란 전인 교육이어야 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결코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재능은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재능의 발견은 초등교육에서 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는 아동의 의지와 지능이 미발육 상태에 있다. 의지와 지능은 선천적 잠재능력으로서 교육은 이 능력에 경험이라는 의복을 입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린이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또, 그는 아동기에서의 이러한 미술교육은 체계적인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은 감각교육으로서 훈련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촉각은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도 가장 정보화하기 힘든 요소이다. 촉각이 어떤 물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시각은 눈, 청각은 귀,

미각은 혀, 후각은 코와 같은 특정 감각기관을 갖는 반면, 촉각은 특정 감각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촉각의 수용기인 피부는 온몸에 고루 퍼져있다. 영상이나 소리 등은 정보로서 수치화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촉감의 경우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 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공학적 분석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촉각은 피부감각 외의 다른 감각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꼭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만 촉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각, 청각, 미각의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촉감을 감지할 수 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눈을 통해 시각과 촉각을 동시에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촉각으로 인지한다. 즉 이미 만져보기 전에 시각적으로 촉감을 추측,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물건의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미술에 있어서 촉각과 시각을 통한 감각교육은 전인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한편 H. Read는 모홀리나기의 촉각 연습 과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모홀리나기는 “촉각체험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기초연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그 재료의 구도, 질감, 표면 상태, 매스의 배열과 관련시켜 연구를 하였으며, 동일한 재료라도 다른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촉각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형태와 재료의 미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5세와 15세 사이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재료의 구성적 형태 만들기를 통해 아동들의 감각을 훈련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아동의 손과 눈이나 정말로 모든 감각 기관을 음과 색, Texture와 Texture

를 구성하고 있는 밀도 사이에 있는 창조적 화합에 익숙하게 한다면, 또 상당한 다양성을 지닌 자연과의 화합에 익숙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전적으로 기계화된 세계라 하더라도 이러한 아동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Education through art”속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 시대의 미술교육에서는 물론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감각 교육이 아닐 수 없다.

2.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1) 촉각교육의 위상 및 의의

(1) 촉각교육의 위상

촉각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 주체가 되는 손은 다른 신체 부위들 보다 우수한 감수성으로 인하여 물건을 생산하고 조작하고 기획하고 창조하는 최초의 연장이면서 만능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진실한 체험을 이야기할 때 피부로 느낀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살갓에 닿아 몸속깊이 간직되는 감각지각은 그만큼 선명하게 우리의 의식 안에 새겨진다. 살갓으로 느끼는 일만큼 소중한 지각체험은 없다. 이러한 감각을 촉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촉각은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다.

다양한 재료의 재질감으로 인한 촉각의 느낌은 예를 들면 찬 느낌, 부드러운 느낌, 금속에서 오는 느낌, 직물에서 오는 느낌, 목재에서 오는 느낌 등 그 자체의 재질에서 오는 표면의 촉각적인 느낌을 말한다.

유아들은 처음 물건을 만지는 촉각의 방법으로 물질의 감각을 배운다.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많은 재료들을 조립하고 해체하면서 무의식중에 각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재질을 촉각적으로 경험한다. 촉각적으로 재료를 경험한 후에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 그 가능성을 탐구해감으로써 지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새로운 조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오늘날 미술교육은 다양한 감각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촉각교육에서는 기술적인 손의 경험과 함께 표현의 과정을 통하여 재료의 재질감을 경험하며 사물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은 재료의 물성을 느낄 수 있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재료의 바른 사용은 물론 조형물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촉각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은 손과 재료의 접촉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기능적인 면, 즉 접촉을 통하여 몸의 일부로서의 기능적인 면과 주관적 감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정서적 안정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정서적인 기능의 발달을 함께 수반하게 될 것이다.

(2) 촉각교육의 의의

아동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직접 만져 보거나 살갓으로 느끼지 못하면 사물이 어떤 결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내지 못하고 눈앞을 스치는 그림자처럼 인식하며, 현실의 사물들도 많은 경우가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영상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어릴 때 연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한 아동이 하악골의 발달로 인하여 치아가 불균형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이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초적인 감각인 촉각을 되살려 주어야 한다. 주변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을 가지고 직접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근육 운동지각과 촉각의 두 경험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면 아동들에게 촉각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동에게 많은 지각적 상황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통해 아동이 지각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술 교육은 환경에서 주어질 수 있는 여러 물질들과 감각적으로 대화하며 지각하고 또한 그것이 직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각체험 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각체험 중 촉각은 손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 측면으로 볼 때 다양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재질감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감성적 지각과 직관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동물의 진화 역사를 보면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의 순서를 밟아 발달하는 동물의 감각기관도 모두 촉각에서 출발한다. 개체 발생이 계통발생을 반복하는 것처럼 사람의 감각이 발달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모든 감각의 발달에 바탕이 되는 촉각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일깨워주지 못하면 다른 감각도 알게 모르게 시들게 마련이다.⁴⁾ 결국 촉각적인 감각을 즐기지 못하는 아동은 다른 감촉에 대한 접촉도 피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대중매체의 영향은 시각과 청각의 엄청난 발달을 가져오고 있는 반면 촉각적인 감각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해서 줄어가고 있다. 미술교육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지각의 발달은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과의 균형적인 발달도 가능하므로 부족한 촉각경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손의 촉각적 기능뿐만 아니라 약화되어 가

4) 윤구병, “만져서 알게 하자.” 우리교육 31호 (1992) 21P

는 아동들의 근육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도 방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찰흙이라는 재료를 통하여 주무르고 두드려 다룸으로써 아동의 근육발달과 촉각적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재료를 가지고 작업할 때 재료가 가진 특성과의 생생한 경험은 “찰흙의 느낌은 어떨지? 따뜻하니? 차갑니? 손가락으로 눌러보렴. 쉽게 부러지니?” 등의 질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아동이 자신의 감각을 인식하는데 자극이 되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2) 바우하우스에 있어서 촉각교육

촉각 교육의 문제는 바우하우스의 교육 특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촉감은 압박, 마찰, 고통, 차가움, 따뜻함 진동 등의 성질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은 최초의 연습에서 촉각의 방법으로 물질의 감각을 배운다. 많은 재료들을 테이블 위에 모아 놓고 각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촉각의 느낌을 체험한다. 이것은 미술에 있어서도 물론 기술에 있어서 재료의 취급에도 다면적 확실성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또한 새로운 표현 유형을 낳는다. 그것들은 의미 깊은 구조로 전혀 새로운 하나의 조직체로 바뀌지는 것이다. 그것은 힘을 방사하고 어떤 기분을 해방하는 힘, 혹은 새로운 생활의 감정마저 낳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재료의 촉각적인 요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토대로 한 창조적인 재료 학습의 예-촉각표 기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양감에 있어서도 재료의 취급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촉각 체험의 다음으로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실험적 처리의 탐구인데 이 학습에 의해서 학생들은 움켜쥐고, 누

르고, 비틀고, 두께를 가늠해 보는 등 손의 기능을 단련하고 여러 가지 재료에 관해 체험한다. 또 도구라든가 기계를 사용하여 불륨을 생각하게 된다.

빌헬름 폴 보오데는 "미술교육은 생활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며 생활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다른 모든 교육 이념과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공적인 미술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통 교육이 초등학교에 기초를 두고 거기서부터 발전되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술교육은 그리기와 모형 만들기에 기초를 두어야한다 그리기와 모형 만들기는 읽기나 쓰기처럼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형은 인간의 본능적 표현의 한 부분으로서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우하우스의 교육과정은 그 시작부터 오늘날 모든 조형의 과정에 -조형의 기초, 조형의 원리, 조형의 요소, 조형 심리 등 아동의 조형 활동 및 전문 미술인의 조형 활동의 기초로서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과정의 체계적, 분석적인 공예 교육과 조형 교육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으며 공예 교육으로서는 돌, 목재, 금속, 점토, 유리, 벽화, 직물의 워크숍과 조형 교육은 자연 연구, 재료 분석, 기술적 구성과 표현, 공간과 색채 구성의 연구 등이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 정체의 토대로서 초보자를 위한 조형 문제의 기초 교육을 위한 예비 과정이 있는데 이 예비 과정이 바우하우스의 중요한 교육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예비 과정을 요하네스 잇텐에 의해 구체적으로 교육되었는데 주목되는 것은 각종 재료의 묘사적 표현과 실재의 실험적 연구, 서로 다른 재료의 조합에 의한 조형적 연구들이다.

모홀이나기의 The New Vision이라는 저술에서는 예비 과정의 의

미와 구체적 교육 방법이 서술되어 있는데, "오늘날 직업은 인간의 성향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것이다. 또 다른 그 어떤 것이다. 모든 것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만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통일된 인간이 지적, 정서적 능력의 자연스런 균형을 획득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기능의 의미에서 진보되어졌을 때만 전문교육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전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의 교육 이념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의 촉각 연습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테이블, 압박과 진동 감각을 연습하는 나사 모양의 테이블, 따끔따끔한 감각 훈련을 하는 못으로 된 테이블, 부드럽고, 딱딱함, 거칠고 매끄러움과 같은 감각의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테이블 등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종류의 감각 재료를 모두 혼합해서 더욱 복잡한 테이블이 될 때는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 피아노의 음을 연습하는 것과 꼭 같이 촉각의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시대에 벌써 감각 교육이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5)

바우하우스에서는 감각 연습에 관하여 재료에 대한 지식, 조형적 어휘에 관한, 또 기술적 응용에 관한 도구라든가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관한 가능성에 관한 지식은 서적, 언어에 의한 교수법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촉각 연습, 재료의 경험, 구조질감, 표면 처리, 크기의 배열에 관한 것이 다차원으로 훈련되어 졌다. 이것은 그 시대의 기초 조형 교육이 되는 것으로 현대의 모든 조형 교육의 모태로서 교육되고 있다.

5) 전광수, 조형에 있어서 촉각 체험 교육의 중요성, 초등교육연구, 제 6집 (1995)

3)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촉각교육

어떤 소재나 기술에 대한 체험은 생활 조형경험을 눈, 손, 머리, 마음의 전체로서 지각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체험에 있어서 촉각적인 것과 시각적 체험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서로 혼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첼 발린트는 국제정신분석잡지에 기고한 논문 속에서 두 개의 다른 지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시각중심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촉각 중심의 세계이다. 발린트는 촉각 중심의 세계가 시각중심의 세계보다 직접적이고, 우호적이며, 시각중심의 세계에서는 우호적이긴 하지만, 위험과 예측 불가능한 물체(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손은 질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만졌을 때 쾌적하게 매끄러운 그릇들은 도예가가 그 그릇과 또 그것을 사용하게 될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만들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목칠공예의 마감질 역시 촉감적인 요소가 마음의 조용한 전율을 일으키는 촉각체험이다.

촉각으로 생각되는 주요한 피부감각은 고통, 압박, 냉온이지만 텍스츄어는 촉각인 동시에 촉각을 통한 시각이기도하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표면은 마르고 딱한 표면보다도 보다 많은 빛을 반사하고 거친 표면은 부드러운 표면보다 고루고루 넓게 빛을 흡수한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촉각경험을 시각경험과 결합하면 젖었다던가, 말랐다던가, 부드럽다던가 하는 느낌이 시각을 통하여 느껴진다.⁶⁾

재료의 본성은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에 있다. 질 속에서 촉감이 체득되는 것이다. 만졌을 때의 느낌, 기질, 성질, 표면의 결 등

6) 강명구, 디자인 센스, 서울, 문운당, 1965, P.139~140

의 용어는 그와 같은 촉감을 나타내는 말이다.

촉감의 훈련을 조형의 기초과정으로 도입한 것은 바우하우스 교육과정에서였다. 이 기초과정의 핵심은 치체크의 영향을 받아 종이, 소석고, 목재로부터 유리, 씨, 심지어는 연탄에 이르기까지 재료의 특성을 느끼고 이해하는 공부였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학생들은 재료를 쌓아올리고 그것의 입체구성을 연구하여 해답을 찾아냈는데,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개인의 상상력 부족 탓이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숨은 창의력을 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교육과정이었다.⁷⁾

이 기초과정은 재료와 재질감을 이해 파악하는 도입과정으로서 목재, 유리, 섬유, 나무껍질이나 모피류, 금속, 석재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재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이들 재료의 시각적, 촉각적 느낌을 추가로 기록케 하였다. 그러나 재료가 갖는 고유한 성질을 언어로 이해한다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예컨대 각종재료의 특성은 실제로 다루어 보고 체험되어야 하는 것이다. 매끄러운 것과 거친 것,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등과 같은 대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지고 다루어서 느껴져야 한다.

바우하우스에서는 감각연습에 관하여 재료에 대한 지식, 조형적 처리에 관한, 또 기술적 응용에 관한 도구라든가 기계를 사용한 작업에 관한 가능성에 관한 지식은, 서적 또는 언어에 의한 교수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촉각연습, 재료의 경험, 구조, 질감, 표면처리, 크기의 배열 등에 관한 것이 다양한 방향으로 체험케 하였다. 바우하우스 교육과정은 지금까지도 건축과 디자인 뿐 아니라 현대 미술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촉각체험 교육을 통한 물성 세계의 다양한 경험은 미술교육에 있

7) 한스 M. 빙그러, BAUHAUS, 서울, 미진사, 1978

어서 감성개발 뿐만 아니라 장차 총괄적 의미로서 예술, 정치, 경제, 산업 등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개조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는 기술, 고도정보화 문명의 시대이므로 사회에 실제 나아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이냐에 따른 전문교육이 지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인적 인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의 감각적인 미술교육에 있어서 손을 통한 감각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지도 프로그램

1) 촉각체험 프로그램

(1) 재료 경험과 촉각 연습

재료와 재질을 이해, 파악하는 도입 과정으로서 목재, 유리, 섬유 또는 나무껍질이나 모피류, 금속, 석재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재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아동들에게 이들 재료의 시각적, 촉각적 느낌을 기록하게 하는 재료 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료가 갖는 고유한 성질을 언어로 이해한다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예컨대 각종 재료의 특성은 실제로 다루어 보고 체험되어야 하는 것이다. 매끄러운 것과 거친 것,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등과 같은 대비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지고 다루어서 느껴져야 한다.

실제 수업에서 여러 가지 재질을 촉각적으로, 즉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의 감촉에 의하여 질감을 가려내는 연습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어린이들로 하여금 주위에서 찾아내게 하거나, 교사가 수집하거나 재료를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촉각상자와 촉각표, 언어표에 의

해 연습할 수가 있다. 이것의 질감 연습은 거친 나무 조각들, 대팻밥, 철사줄, 밧줄, 다듬어진 나무 조각, 깃털, 유리, 얇은 쇠조각, 석쇠류, 직조물, 섬유, 가죽, 모피, 깡통, 거친 돌, 차돌, 골판지, 하드보드지, 아트지, 파스텔지, 합판 조각, 비닐 조각 등이 그것일 것이다. 나무는 섬유질이며, 마르거나 거칠거나 매끄러운 것 등을 판별할 수가 있으며 쇠는 단단하고 무거우며 광택이 나거나 윤기가 없을 수도 있는 한 가지 재료이지만 질감에 의해서 그 차이를 구별해 내는 경험을 한다. 마침내 아동들은 그들 재료가 갖는 재질의 다양성을 자유자재로 표현에 적용시키거나 재현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탐구 과정은 표현 과정에 있어서도 실물이 없이 그들 자신의 개인적 감각 능력으로 질감을 표현해 내는 능력이 길러진다. 이와 같이 관찰하고 체험한 대상을 기억에 의존하여 모든 자연물과 인공물을 다차원으로 인지할 때 조형 능력은 상당히 신장되어 질 수 있다.

(2) 재료 경험과 촉각 체험 연습의 실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감각 훈련을 하는 연습은 그 감각이 어떤 종류의 감각이든 그 훈련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촉각능력 신장의 중요성에 배경을 두고 있다. 실제 연습에 있어서 촉각 연습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촉각상자, 촉각표, 언어표라는 도구에 의해 그 활동 과정 및 방법, 관련 활동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도구의 준비 및 제작

가) 촉각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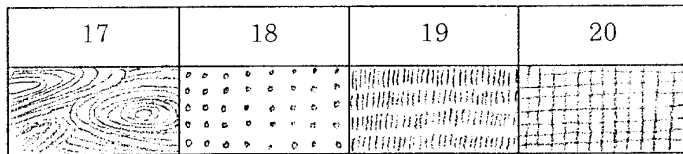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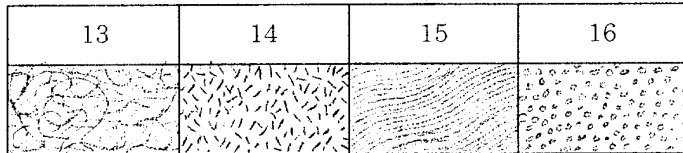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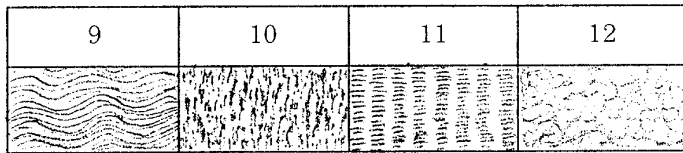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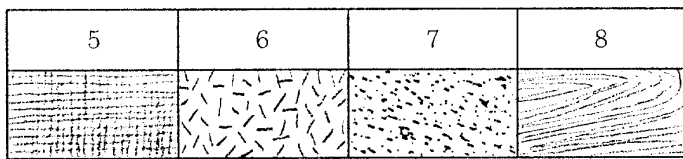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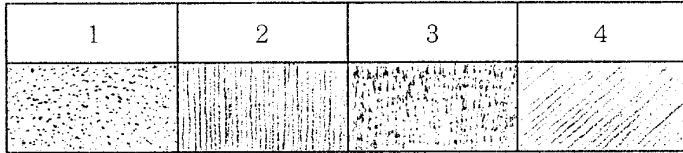
60cm*60cm*30cm 정도의 종이상자를 개폐가 용이하도록 만든다. 뚜껑은 손이 들어가서 여러가지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는 크기로 상자의 양방향에 둥글게 구멍을 낸다.

나) 촉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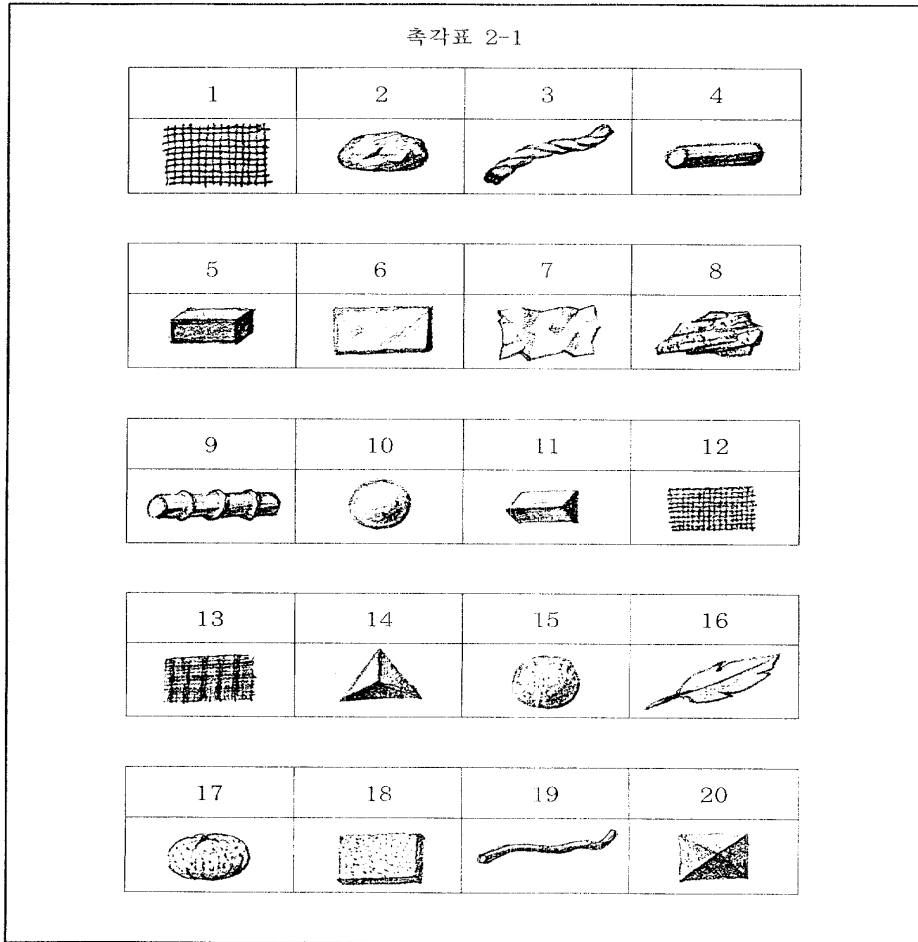
촉각연습 실제의 구성요소에 따라 그리고 촉각연습 과정 구성요소에 따라 쉐트지 전지 또는 하드보드지에 칸을 나누어 촉각함 속의 내용과 같게 붙여서 시각적으로 관별이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배열한다.

촉각표 패턴의 예 1

촉각표 1-1



촉각표 패도의 예 2



다) 언어표

언어표는 촉각상자와 촉각표의 구성 내용에 따라 교사가 다양하게 느낌을 제시한다. 즉 교사는 재질의 느낌에 대한 풍부한 수식어 제시, 구체적 사물 제시 등 어린이들이 만져본 것, 시각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한 확인이 언어표에서 쉽게 찾아질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해야 한다. 언어표 패도의 내용은 촉각상자, 촉각표에 제시된 사물보다 언어 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결론적으로 재료 경험과 촉각

체험 연습은 촉각 연습 과정 구성 요소들을 촉각상자-촉각표-언어표로 구조화하여 다양한 물질과 촉각 활동을 피하여 물성에 대한 경험과 조형 활동 전반의 창의적 표현을 돕는 기초로서 그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언어표			
	느낌		느낌
1	가칠까칠하다	26	얇다
2	거칠다	27	가늘다
3	부드럽다	28	길다
4	단단하다	29	울퉁불퉁하다
5	매끄럽다	30	촉촉하다
6	푹신푹신하다	31	듬성듬성하다
7	따뜻하다	32	말랑말랑하다(탄성)
8	차갑다	33	물렁물렁하다(가소성)
9	치밀하다	34	딱딱하다
10	두껍다	35	짧다
11	탄력이 있다	36	무르다
12	온화하다	37	푸석푸석하다
13	미지근하다	38	터실터실하다
14	굵다	39	푹신푹신하다
15	결이 있다	40	광택이 난다
16	오목하다	41	반광택이다
17	볼록하다	42	무광택이다
18	용기선이 나 있다	43	작다
19	오목선이 나 있다	44	크다
20	규칙적인 무늬가 있다	45	미세하다
21	불규칙적인 무늬가 있다	46	젓었다
22	구불구불하다	47	말랐다
23	곧다	48	촉촉하다
24	물컹물컹하다	49	반질반질하다
25	쭈글쭈글하다	50	볼록선이 나 있다

2. 촉각 연습과정 구성요소

가) 형태 감지능력 촉각연습

촉각적으로 감지되는 형들은 촉각표와 언어표에서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가 적합하다. 내용 구성은 장난감의 블록을 이용한다거나 구, 원통, 원뿔, 정육면체, 직육면체, 삼각주, 정사면체, 8면체, 육면체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그 것들이 종이, 석고, 점토, 쇠 등의 모형으로 다양한 재질이면 더욱 좋다. 더 나아가 단순한 사물 형태 즉, 성냥갑, 플러스펜, 볼펜, 만년필 등의 필기도구, 쇠젓가락 그리고 나무젓가락과 철사봉, 두꺼운 비닐과 얇은 비닐, 길고 짧은 음료수 캔, 단추, 깃털, 조그마한 그릇, 과일 종류, 돌맹이 종류, 침엽수, 잎과 활엽수잎 등을 준비하여 어린이들이 만지는 것에 대한 흥미를 퍼즐 게임을 즐기듯 사물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게임 방식으로 촉각 연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형태감지 촉각 연습은 만져본 형태를 언어표 및 촉각표를 통해 확인하여 감각의 확신감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촉각 연습의 선행 훈련으로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좋은 연습방법이 된다.

나) 여러가지 재질 촉각연습

이것은 다양한 재질에 대한 연습으로서 재료가 가지는 표면의 느낌 및 온도, 경도, 광택도, 무게 등을 부분적 종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연습 과제이다. 구성 내용으로는 비슷한 형태나 규격화된 형태로 서로 다른 느낌을 판별해 낼 수 있는 자료면 더욱 좋다. 거친 나무토막과 잘 가공된 나무토막, 거친 쇠조각과 도금 처리된 쇠조각, 성기게 짜여진 직물과 촘촘하게 짜여진 직물과 촘촘하게 짜여진 직

물, 거친 돌과 차돌, 굳은 점토 덩어리와 말랑말랑한 점토 덩어리, 얇은 종이와 두꺼운 종이, 종이표면에 여러 가지 도구로 가공을 한 규격화된 종이조각, 철사와 스프링, 광택 플라스틱, 섯조각, 깃털, 모피, 가죽, 비닐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로 구성될 수 있다.

다) 유사 재질 촉각연습

비슷한 재질의 촉각 연습은 여러 가지 재질 촉각 연습의 다음 단계로 고학년에서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행 체험된 감각(촉각, 시각, 지각된 언어)이 다양하게 경험 요소로서 지각되어야만 그 체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 내용으로서는 새순 돋아난 나뭇잎과 오래된 나뭇잎, 대패로 다듬어진 나무토막, 락카 또는 니스로 표면 처리된 나무토막, 기계로 다듬어진 섯조각과 락카칠된 섯조각, 고풍택 플라스틱과 무광택 플라스틱, 여러 가지 모양의 무늬로 엠보싱된 종이조각, 철사, 그리고 강철선과 구리선 부드러운 깃털과 역센 깃털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각기 그 무게나 온도, 연한 재료, 또는 단단한 재료 군으로 나누어 유사 재질의 구성 요소로 연습할 수 있다. 특히 표면 느낌의 미묘한 유사성을 판별해 낼 수 있는 재료의 군으로 구성하면 더욱 학습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라) 형태와 재질 촉각연습

가)의 촉각연습과 나),다)의 촉각연습이 상호 결합되는 상태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매끈한 구형과 까칠까칠한 구형, 부드러운 정육면체와 딱딱한 정육면체, 부드러운 원기둥과 매끈한 원기둥 무거운 원뿔과 가벼운 원뿔, 쇠 직육면체와 플라스틱 직육면체

등과 같이 같은 모양에 대비되거나 유사한 재질을 제시할 수 있다. 또는 무게, 표면 온도 등 상호 결합된 것들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직육면체 모양의 표면이 매끄럽고 가벼우며 온화한 플라스틱, 잘 구겨지는 천인 것 같은데 짜여진 것이 치밀한 것, 매끄럽고 따뜻한 물체 등 촉감과 구체적인 사물의 이름을 상호 결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사물의 형태 또한 복합적으로 촉각 연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표면 느낌과 무게, 온도감 등을 가진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 연습할 수 있다.

3. 촉각상자 놀이

가) 학습목표

다양한 촉각 자극을 경험하여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촉각 표에서 찾을 수 있다.

나) 준비물

촉각상자, 여러 가지 촉감의 자극제, 촉각 표

다) 지도방법

첫째, 손을 넣어 만져볼 수만 있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촉각상자를 만든다.

둘째, 교사가 촉각상자 속에 물건을 넣는다. 학생들은 상자 속의 물건을 만져 촉각의 느낌을 말로 표현해 보고, 느낌이 가장 비슷한 그림을 촉각 표에서 찾는다.

라) 유의점

촉각 표에서 어울리는 그림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촉각 표를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시각이 아닌 촉각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눈으로 볼 때와는 다를 새로운 느낌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어휘 표현이 증가하며 다양한 선의 느낌도 연상할 수 있다.

2)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구안

(1)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어린이들의 생활에서 놀이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유희적 활동에 교육적 의도를 가미해서 미술표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미술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촉각에 의한 미술 표현지도의 관점은 촉각 및 지각활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따라서 촉각 경험을 통한 미술놀이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즐거운 놀이와 창조적인 표현활동이 되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첫째,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구안한다.

둘째,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거나 잘 활용하지 않던 촉감을 능동적이고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즉, 감각 자체의 개발이 아니라 감각을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감각지각력을 기르고자 한다.

셋째, 활동 방법을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미술놀이로 접근한다.

넷째, 풍부한 감각지각을 위해 구체적인 실물자료를 동원하여 수업

에서 실제로 촉각을 경험하게 한다.

다섯째, 표현 욕구를 자연스럽게 유발시키고 미술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료와 용구의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는 촉각 경험을 통한 미술놀이 활동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어린이들에게는 허용 적이고 지원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재에 따라서 때로는 활동 그 자체가 놀이가 되는 순간도 있고, 그리거나 만들기 등 순수한 미술 활동만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수준이 최대한 보장될 때 활기 있는 미술활동이 기대될 수 있다.

수업시간 동안 교사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조언을 제공해야 하고 어린이들의 조형성과 표현내용 및 표현방법은 연령이나 발달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제재를 제시하거나 동일한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다양한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을 서로 관련 있게 통합시키고 감각 자극활동을 우선시하되, 사고를 촉진시키는 활동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감각놀이 형식이지만, 평면으로 그리거나 입체로 만들기 중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할지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교실 내 학습뿐만 아니라 교실 외 현장학습도 활용하도록 한다.

3) 촉각 경험을 통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촉각 경험을 통한 미술놀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감각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촉각의 감각을 의미 있게 활용하여 조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촉각의 감각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자유자재로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촉각 프로그램 1> 곡식 모자이크

1. 지도원리

가) 다양한 재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재질감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다.

나)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서 흥미롭고 자유로운 표현을 경험한다.

다) 곡식 알갱이로 높낮이를 조절하여 모자이크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기존의 종이 모자이크의 평면적인 단순함에서 벗어나 각 재료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흥미롭고 독창적인 표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2. 지도방법

가) 각자 수집해 온 재료를 놓고 그 재료의 형태, 재질감,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나) 색과 모양, 질감을 살려서 표현한 참고작품을 보며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다) 자기가 표현할 내용을 재료의 특성에 따라 구상한 후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며 크게 밑그림을 그린다.

라) 주제 부분부터 접착제를 발라가며 곡식 알갱이를 붙여 평면을 채워나간다.

마) 서로의 작품을 보고 표현이 재미있는 부분이나 특징있는 부분 등을 이야기 한다.

〈축각 프로그램 2〉 실을 이용한 선재 구성

1. 지도원리

가) 선재 구성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여 실을 이용한 선재 구성에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

나) 굵고 가는 실과 다양한 재질의 실을 준비하여 각각의 재질감을 느끼도록 한다.

다) 각각의 재질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선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도방법

가) 선재 구성 작품을 보고 개념과 재료, 제작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나) 참고 작품을 보면서 선으로 엮어서 독창적인 모양이 되었음을 알고 의욕을 북돋게 한다.

다) 실로 엮어 어떤 무늬 만들기를 할지 구상하게 한다.

라) 구상한 것을 판지 크기의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린다.

마) 판지에 먹지를 대고 밑그림을 옮겨 그린다.

바) 판지에 접착제를 발라가며 선재 구성을 한다.

〈축각 프로그램 3〉 마법의 성 쌓기

1. 지도원리

기존의 찰흙으로 나타내기에서의 계획적이고 구상적인 작업의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시도이다. 찰흙을 덩어리로 뭉쳐 둔 상태에서 실이나 철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자르고, 잘려진 덩어리에서 우연한 형태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한다. 이때 덩어리의 크기가 너무 작지 않도록 한다.

찰흙을 만짐으로써 찰흙의 질감을 느낄 수 있고 작품 완성 후 찰흙의 마른질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미리 찰흙의 덩어리를 만들어 적당히 굳혔다가 사용함으로써 원래 찰흙의 무른 상태와 어느 정도 굳힌 상태에서의 질감차이를 느끼고 작업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2. 지도방법

가) 비닐을 벗기고 모듬별로 찰흙을 적당한 모양의 덩어리로 대강 뭉친다.

- 원, 원기둥, 사각형, 비뚤게, 바르게
- 덩어리 사이의 자연스러운 공간도 활용하도록 한다.

나) 찰흙의 덩어리를 흙 자르기(철사나 실로 자체 제작)로 마음껏 자르게 한다. 직선적인 자르기만 하는 경우에는 형상에서 펼칠 수 있는 상상의 한계가 쉽게 나타나므로 구불구불하게 오르락내리락 자르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다.

다) 잘려진 찰흙의 덩어리를 늘어놓으면서 각자의 상상을 펼치도록 한다.

한 아동이 찾은 형상을 서로가 감상하고 다른 형상을 찾아보도록 한다.

이때 보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 형상과 느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라) 그것들을 옆으로 늘어놓아 보고, 위로 쌓아 올려보면서 새로운 조화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한다. 우연히 나타난 형상을 찾아내고, 잘려진 찰흙의 덩어리를 늘어놓거나 쌓아올리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나타내도록 한다.

마) 오브제를 덧붙이는 활동을 통하여 상상의 느낌을 강화시킬 수 있다.

3. 학습효과

가) 찰흙이 갖는 미술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나) 자체 제작한 철사로 만든 자르기를 이용하여 찰흙 덩어리가 잘려지는 활동은 재료의 처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알게 하고,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어 학습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다) 우연히 나타난 형상을 찾아 자신의 이미지를 최대한 펼쳐 나가도록 구성하여 기존의 찰흙으로 나타내기에서의 계획적, 구상적인 작업의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의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적절하다.

라)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연상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동들에게 작품의 제작과 감상에 있어서 다양한 시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마) 잘려진 찰흙 덩어리를 여기저기로 옮기며 공간에 늘어놓거나 쌓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입체적인 작품 활동에서 공간이 차

지하는 의미를 몸으로 느끼게 한다.

바) 끝마무리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작품의 마무리와 진열의 방법이 주는 느낌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한다.

사) 찾아낸 이미지에 적당한 오브제를 선택하여 덧붙이는 활동은 느낌을 강화시키는데 오브제의 활용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아) 우연한 과정에서 형태와 조합을 통하여 모양의 변형을 이루는 아동들의 활동 모습에서 창의적인 미술표현과 감상학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축가 프로그램 4> 스티로폼을 이용한 조형학습

1. 지도원리

스티로폼의 원형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찾고, 재료가 갖는 성질을 살려 마무리를 하도록 한다.

2. 지도방법

가) 스티로폼 덩어리를 떼어 내거나 자르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이미지를 찾도록 집중한다.

나) 발견된 이미지를 두고 모듬별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공동 사고 과정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나아가 서로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다) 여러 가지의 발상 가운데 가장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라) 보조 재료를 더하여 가면서 깊이 있는 표현을 추구한다.

마)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한 발짝 떨어져서 과연 자신의 발상이 제대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바) 필요에 따라 채색을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재료가 갖는 성질을 도와주는 채색을 이끌도록 한다.

3. 학습효과

가)스티로폼을 자르고 꾸미는 과정에서 우연적인 형태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나) 보조 재료들을 응용하여 스스로 착상한 발견에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다) 덧붙이고 꾸미는 활동이 아닌 부수는 행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동의 고정관념 탈피에 도움이 된다.

라) 우연적인 발견의 기쁨을 맛보는 활동으로 흥미와 집중도가 높고, 작품의 우열을 비교하기보다 활동의 과정을 즐기게 되어 사실적인 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마) 작품활동 시간에 익히는 형태에서 발상을 이끄는 방법은 심미안을 기르고 미적 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미적 감수성은 표현 활동의 전반에 걸쳐 기본이 된다.

<촉각 프로그램 5> 크레파스 문지르기

1. 지도원리

다양한 사물을 문질러봄으로써 여러 가지 촉감을 경험하고 그 느낌을 말할 수 있다.

2. 지도방법

가) 실외에 얇은 종이와 크레파스를 가지고 나간다.

나) 여러 가지 촉감의 사물(시멘트, 건물의 벽면, 울타리, 돌, 나무 등) 표면에 종이를 대고 크레파스로 문지른다.

다) 작업이 끝나면 교실로 들어와 다른 학생의 그림을 들고 어떤 사물을 베꼈을지 맞춰본다.

<촉각 프로그램 6> 물감을 얼려 표현하는 판화

1. 지도원리

판화에 대한 이해와 독특한 재료의 원리를 파악한다.

2. 지도방법

가) 판화에 대한 이해와 재료의 원리를 파악한다.

나) 물이 온도에 따라 얼고, 녹는 원리를 이용하여 평판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다) 일반 종이는 물이 잘 흡수되기 때문에 물이 흡수 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양초를 화지 위에 발라놓는다.

라) 필요한 색상의 물감을 물과 섞어 놓는다.

마) 찍을 종이를 미리 알맞은 크기로 잘라 놓는다.

바)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물감 방울의 크기를 조절해 보며 도구와 친숙해 지도록 연습한다. (표현할 그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찍어낼 종이는 알맞은 크기로 잘라 놓는다.)

사)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점을 그리고 냉동실에서 물감을 섞은 물을 얼린다.

아)준비한 화지를 처음 찍을 때에는, 얼린 점 그림위에 살짝 올려 놓으면 점 그림과 비슷한 형태가 찍혀 나온다. 그 다음 화지를 덮고 손으로 누르면서 시원한 촉감과 함께 물감이 우연히 번지는 과정을 거친다.

〈촉각 프로그램 7〉 촉각놀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물감으로 표현하기

1. 지도원리

상상이라 함은 본것, 들은 것, 느낀 것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새로운 세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상상력은 인간의 생각을 미지의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창의성 신장에 있어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촉각놀이와 찰흙의 작업을 통해 촉각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추상화하여 나타내어보고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찰흙과 보다 친숙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촉각의 감각을 익혀 나갈 수 있다.

2. 지도방법

가) 교사는 찰흙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들을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주무르기, 빚기, 누르기, 찌르기, 뭉치거나 늘이기, 굽기, 집어 올리기 등의 표현방법들을 설명하고 화면을 통하여 작품의 예를 보여준다.

나) 눈으로는 보지 않고 손으로만 만지며 눈으로 보듯이 느끼는

촉각활동임을 밝혀두고, 지금까지 눈으로 보며 하던 것을 손으로만 만지며 다양한 방법을 찾아 표현하도록 한다.

규칙

(1) 촉각상자에 찰흙덩이를 넣는다.

(2) 촉각상자 속에 손만 넣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도록 한다.

(3) 작업이 끝날 때 까지 촉각상자 안을 들여다보지 않도록 한다.

(4) 촉각상자 안에 손을 넣어 느껴지는 촉각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도록 한다.

(5) 작업이 끝나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펼쳐놓게 한다.

다) 아이들은 교사의 표현방법에 관한 설명과 촉각놀이의 규칙을 듣고 난 후 찰흙놀이를 한다. 놀이를 마친 후 촉각상자 속에서 만들어진 형태를 꺼내 놓는다.

라) 교사는 만들어진 형태를 보며 어떤 장면이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하여 예를 보여준다.

마) 아이들은 촉각놀이를 통해 만들어진 찰흙의 형태가 무엇과 비슷한지 연상하여 본다. 동물, 식물, 그 밖의 물체들 중에서 연상되는 내용을 생각하여 이야기 하도록 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이야기 과정을 상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상하게 한다.

바) 교사는 아이들이 구상한대로 표현하게 한다. 아동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고, 미숙한 어린이에게는 개별적으로 도움을 준다. 아이들은 구상한 내용을 평면작업을 통하여 나타내고, 놀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색의 느낌이나 형상화로 자유롭게 나타낸다.



〈그림 1〉 촉각상자 안에서의 조형놀이



〈그림 1-1〉 촉각상자 속의 조형물 이미지화



<그림 2> 촉각상자 안에서의 조형놀이



<그림 2-1> 촉각상자 속의 조형물 이미지화



<그림 3> 촉각상자 안에서의 조형놀이



<그림 3-1> 촉각상자 속의 조형물 이미지화

<촉각 프로그램 8> 손가락을 사용하여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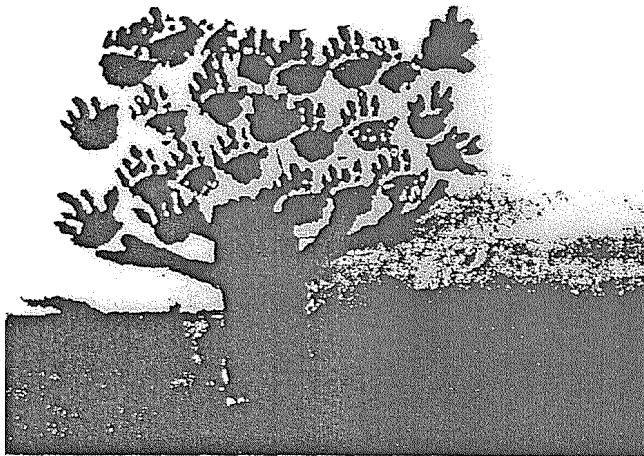
1. 지도 방법

(가) 손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예시작품을 보여 준다.

(나)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물감을 묻히고 물감의 촉감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

(다) 손바닥을 이용하여 나무 모양을 표현하거나 손가락 끝으로 잉크를 묻혀 탁탁 찍어가면서 재미있는 형태를 만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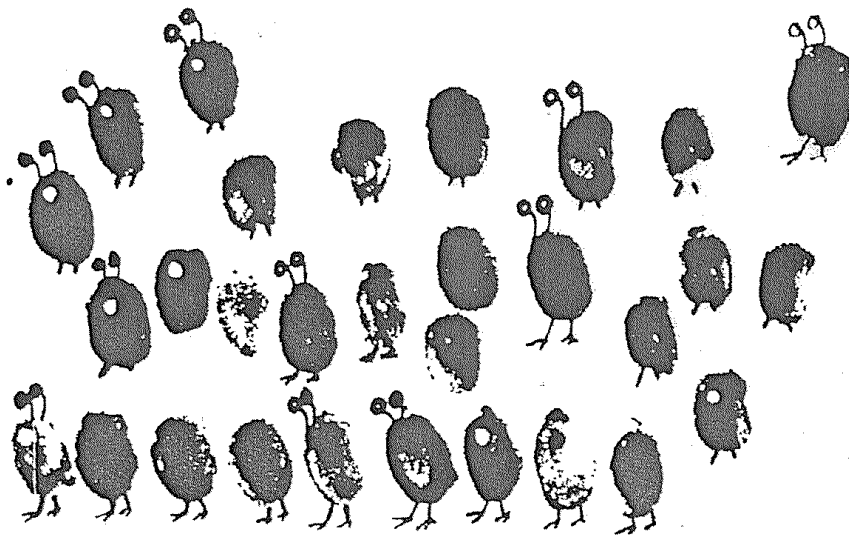
(라)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그림 4> 나무 표현



<그림 5> 손바닥으로 재미있는 형 만들기



<그림 6> 손가락으로 벌레 찍기



〈그림 7〉 손가락으로 구상표현



〈그림 8〉 손가락으로 구상표현



〈그림 9〉 손가락으로 구상표현

〈촉각 프로그램 9〉 냉수와 온수

1. 지도원리

얼음물과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보고 손끝으로부터 느껴지는 촉각각을 익힐 수 있다.

2. 지도방법

(가) 두 개의 컵에 얼음물과 따뜻한 물을 붓고 한쪽 손을 담가보아 그 느낌을 기억해 두도록 한다.

(나) 다른 한쪽 손을 다른 온도의 컵에 담가보아 그 느낌을 기억해 두도록 한다.

(다) 동시에 양손을 각각의 컵에 담가보아 그 느낌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라) 각각의 느낌을 형상화 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그림 10〉 얼음물의 느낌을 형상화



〈그림 11〉 따뜻한 물의 느낌을 형상화

〈촉각 프로그램 10〉 사포에 크레파스

1. 지도 원리

고운것과 거칠은 사포의 재질감을 손으로 느껴보도록 한다.

2. 지도 방법

가) 검정색의 까칠까칠한 사포를 손으로 만져보아 그 촉감을 느껴본다.

나) 검정색의 부드러운 사포를 손으로 만져보아 그 촉감을 느껴보고, 두 사포의 재질감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다) 사포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한다.



〈그림 12〉 사포에 크레파스

V. 결 론

오늘날의 아동들은 '하기'보다는 '보기'에 익숙하고, 촉감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술의 교육이 감각을 충분히 활용하는 교육과 심성을 순화시켜주는 측면에 소홀하고 평면중심, 작품중심, 결과중심의 관점에 얽매어 있기에 학생들은 보다 창의적인 표현활동의 본질적인 면을 잃고 있다.

아동들은 재료와의 경험을 통해 촉감감각을 익히고 질감이나 형태 감각을 갖추어 나가게 된다. 지나치게 교과서 중심의 표현활동에 얽매이거나 임기응변 방식의 일회적인 활동만으로는 확실한 미적 능력을 아동들에게 체득시키기에 무리일 뿐이다. 또, 무조건적으로 많은 재료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동의 창의적인 표현을 이끌 것이라는 생각은 곤란하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촉각체험 학습을 받아오지 못한 아동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제공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며, 방황만 하다가 미완성으로 끝내는 미술수업의 누적은 아동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적당한 규제와 적절한 촉각경험이 창조적인 자극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촉각의 경험을 살려 창의적이고 구조적인 표현을 지향하는 미술학습 프로그램이 표현 재료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아동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표현력을 신장시켜주고 미적 안목을 길러준다는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따라서 단계적인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학습은 표현의 내용과 방

법의 변화를 가져오고 다음 미술활동에 영향을 끼치며 다른 감각경험에 자극을 주어 새로운 미적 안목을 창출하게 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의 과정은 지금까지의 재료와 표현 방법의 제한되고 고정적인 틀을 벗어나게 하여 미술표현활동의 질적인 전환을 이끌어 낼 것이다.

생활환경 속의 수많은 물건들에 대하여 아동들에게 되도록 많은 지각적 상황을 제공해줌으로써 아동은 지각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곧 미술교육에 있어 환경에서 주어질 수 있는 여러 물질들과 감각적인 대화를 하면서 지각하고, 또한 그것들에서 직관을 도출해낼 수 있는 직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각 체험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교사는 촉각훈련에 있어서 미술교육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입체 재료를 다양하게 경험케 하여 아동의 마음과 촉각감각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도모하여야 하며, 풍부한 상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촉각의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심도 깊은 미술프로그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한스 M. 방글러 저, 김윤수 옮김. (1962) 바우하우스. 미진사.1978.6
- 김정, 이수경. 1985. 유아를 위한 조형놀이 교육. 서울: 교문사
- 골드스타인, E.B.1980. 감각과 지각. 정찬섭, 김정오, 도경수, 박권생, 박창호, 김유진, 남종호.서울:시그마프레스,1999
- H.Read, 정시화 역, 디자인론, 서울, 미진사, 1979
- 김춘일, 미술교육론, 서울, 홍성신서, 1984
- 김정,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서울, 창지사, 1990
- 오현숙, 신나는 어린이 미술 조형실기 교실, 서울, 예경, 2000
- 전성수, 최윤재, 김정선, 야!미술이 보인다, 서울, 예경, 1997
- 아이스너,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 예경, 2001
- 로웬펠드, 브리테인,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1993
- 전성수, 이일우, 정옥란, 친구와 함께 하는 조형탐색 놀이, 서울, 예경, 2001

<논문>

- 강진순, 미술교육에서 오감경험을 통한 조형놀이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 전광수, 조형에 있어서 촉각 체험의 중요성,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제 7집, 1995

강은영, 놀이를 통한 통합적 조형활동의 필요성과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8

김선애, 감각교육이 유아의 지각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이규선, 미술과 교육의 연구 동향에 관한 소고,

사향미술교육 논총 제 1집

정찬국, 체험적 입체교육을 위한 재료 연구

김선애, 몬테소리 감각교육이 유아의 지각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안무영, 조형발달 단계에 따른 미술교육방안의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2

ABSTRACT

A Study on Art Education Program Using the Tactile Sense Experience

Kim, Soo-Jin
Major in Fine Art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fine art is subject of attaching importance to sense. This sense grows through aesthetic experience. And aesthetic experiences begin with sensible experience in the living environment. So the students improve on the power of expression and have tactile sense when they express their thinking and feeling through sense in living environment. The fine art is subject of attaching importance to sense. This sense grows through aesthetic experience. And aesthetic experience begin with sensible experience in the living environment. So the students improve on the power of expression and have tactile sense when they express their thinking and feeling through sense in living environment.

But most of students have been thought that they lack the power of creative expression and the power of perception through the sense.

So it is necessary of teaching program that students can

develop the power of perception through the tactile sense.

In this paper, I suggest education program using the tactile experience that students take interest in art class and develop their power of perception.

The purpose of my paper is how to offer stimulant of sense to students, to make express their feeling with interest, to improve the power of perception of observing objects, to improve the power of imagination, to improve the power of creative expression.

Therefore to prove result of successive fine art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tactile sense experience.

The system of study is as follow.

First, I survey previous research about the tactile sense experience.

Second, I investigate theoretically the importance of the sense education and I research effectiveness fine art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

Third, Fine art education program improve the power of expression through tactile sense experience.

Fourth, Fine art education program improve the power of perception of observing object.

In result, Fine art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tactile sense experience develop educational result in art class.